

정개특위 석패율제 도입 합의...지역주의 타파 할까

한나라 광주·전남서 최소 2명 지역구 국회의원 진입 길 터

통합진보당 등 소수정당 반발... 4월 총선 도입 진통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석패율제(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4월 총선에 나서는 광주·전남지역 한나라당 주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4월 총선에서 석패율제 도입이 확정된다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최소한 2명 이상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협의를 갖고 4월 총선에서의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정개특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란 특정 정당에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 다른 정당 후보가 출마했다가 득표율 10% 이상을 기록하고도 아깝게 낙선한 경우, 이를 구제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즉,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기 초강세를 보이는 영남과 호남 지역 등에 석패율제를 도입, 상대 당 후보들이 낙선하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진입하는 길을 만들어 지역주의 해소의 발판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선관위는 석패율제와 관련,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 지역구 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정당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석패율제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한나라당은 정치적 불모지인 광주·전남·전북을, 민주당은 대구·경북·경남 등을 석패율제 적용 지역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선관위가 제시한 석패율제는 시·도별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광주·전남·전북 등에 각기 1명 이상 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총선에서 광주·전남 지역에 출마할 한나라당 예비 주자들은 국회 정개특위 합의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논의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문일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여야가 뒤늦게나마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

며 "석패율제가 도입된다면 전남에서 2석, 광주에서 1석 정도가 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이정현 의원(서구 을)이 석패율제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데다 서구 갑의 정용화 예비후보도 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총선에 나섬에 따라 석패율제 도입시 절대 강자 부재로 인한 치열한 경쟁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전남에서는 김문일 전남도당 위원장(담양·곡성·구례)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한나라당세가 비교적 강한 광양 지역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석패율제 도입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자유선진당, 진보통합당, 창조한국당 등 군소정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석패율제가 도입된다면 현재 54석인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44석 정도로 줄게 되면서 비례대표 의원 비중이 높은 군소정당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아권연대를 지렛대 삼아 민주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석패율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랑의 떡국 나누기

광주시 북구와 (사)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둔 18일 각동동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주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떡국 떡과 당면, 부침가루 등을 포장해 목거·중증장애인 800세대에 전달했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만3~4세 유치원·보육비 월 22만원 지급

■ 보육·양육 지원 확대...내아이는 얼마나 받나

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 인상

정부가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유아교육 및 보육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의무교육 연장 조치로 올해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해 적용되는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4세로 확대하는 것이 첫번째다.

정부는 또 현재 소득 하위 15%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했던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70%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육비 지원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64만명으로 6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과 중산층 대부분이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재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현재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차상위 계층(소득 하위 15%) 가정의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약 9만6000명 수준이며, 수당은 0세가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확대 시행되는 만 0~2세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 보육기관 이용 아동으로 한정되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양육과 시설 보육 이용 간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여수박람회 전남 도약의 발판 삼자”

22개 시군 부단체장 성공개최 협력 다짐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을 모은다.

전남도는 18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결의 다짐대회'를 갖고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국가와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배용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여수박람회는 현 정부에서 개최되

는 가장 큰 국제행사라 '정부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한 만큼 22개 시·군 모두가 내 지역 일이라 생각하고 서로 협력해 전남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자"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 예매를 비롯해 박람회 기간 중 국제 자매결연도시 관계자 초청 행사 개최, 박람회와 지역 특색을 살린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등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또 박람회 기간 중 박람회

참가 국가와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박람회장 방문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전남도는 ▲물관리 및 재정 조기집행 ▲학교폭력 대책 ▲에너지 절약 추진 ▲설명회 입장권 예매를 비롯해 박람회 기간 중 국제 자매결연도시 관계자 초청 행사 개최, 박람회와 지역 특색을 살린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등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
 서울 삼일로점(합동점) 상일로 입구: 022276-056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입: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약) 입: 02733-0220 송파점(신촌역 2번 출구) 입: 02419-3388 경기 안양점(구.신원리) 입: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입: 032617-5110 수원점(남문) 입: 031246-5110 의정부점(모천로) 입: 031821-6655 안양점(백산로) 입: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입: 031658-6510 용인점(용인네거리) 입: 031336-1090 오산점(오산인동 2층) 입: 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입: 032029-4400 남양주점(평내로) 입: 071823-9803 부산 서면점(서면로) 입: 051818-8800 서면점(서면로) 입: 051256-7200 울산점(울산종합백화점) 입: 05203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입: 055251-0100 진주점(중앙로) 입: 055745-4870 대구 동명점(동명네거리) 입: 053425-4440 삼척점(삼척네거리) 입: 053426-1511 남일점(아카데미빌딩) 입: 053425-7576 경북 포항점(해곡로) 입: 054044-5110 인동점(구.인동농고) 입: 054659-2248 광주 광주점(구도동) 입: 02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입: 02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시장) 입: 061705-6845 전북 전주시(덕영로) 입: 063225-5722 군산점(구.서해동) 입: 063446-7188 익산점(북부대) 입: 063638-6600 남원점(신성시장) 입: 063632-3626 대전 대전점(도심) 입: 042254-5110 대전점(충로로) 입: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입: 042255-63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입: 041553-2888 광주점(광주근거리) 입: 041852-5110 충북 청주점(원광대) 입: 043253-5110 제주 제주점(영평로) 입: 064753-4358 인천점(인천역) 입: 043252-1177-8 충주점(삼천로) 입: 043852-1414 강원 강릉점(해안로) 입: 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입: 033253-5110 제주 제주점(영평로) 입: 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CE마크 인증

GMP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 구도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1225-5110

■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1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1752-8845